

<서평>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D. Kata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4)

김경식\*

## 1. 들어가는 말

번역이나 통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그 답을 다 알고 있는 질문인 듯 보인다. 하지만, 데이빗 카탄(David Katan)이 저술한 『문화 번역하기』(Translating Culture)라는 책을 읽어 가면 우리가 번역이나 통역을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번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두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 너머에 위치한 두 문화의 관계라는 것이 저자의 논지이다. 또한 저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역자나 해석자들을 단지 걸어 다니는 사전이나, 복사기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22쪽). 하지만, 저자는 번역자는 복사기가 아니라, 문화 매개자(cultural mediator)라고 호소한다.

본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전체 13장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저자는 번역자, 통역자, 그리고 해석자들을 위한 번역 이론에 관한 개론서를 쓰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는 순간, 낯선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번역 개론서이다.

## 2. 내용 요약

본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주로 번역(혹은 해석)을 위한 직접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안양대 신학대학원 강사, 신약학

제 1부 - 문화를 틀 속에 담기: 세상에 대한 문화와 결부된 정신적 지도(Framing Culture: The Culture-Bound Mental Map of the World)

1장에서 저자는 문화적 해석자(cultural interpreter) 혹은 문화적 중개자(mediator)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할애한다. 저자는 번역자나 통역자가 단순히 복사기나 혹은 살아 있는 사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 두 문화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1장에서 저자는 번역 혹은 통역에는 문화와 관련되어 세 가지 차원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첫 번째 차원은 과학적 언어 다시 말해 어떤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통 과학적 용어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번역자가 번역하는 데 가장 용이한 영역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이 용어의 사용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한다. 둘째는 공식적(formal)인 차원으로 한 사회의 전통이나 규범과 관련된 요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공식적이어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차원의 문화를 번역자가 번역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1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저자의 견해는 한마디로 해석자(interpreter)는 단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이다(18쪽).

결국 번역자는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이 2장에 나온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문화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면서 집합적인 것으로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26쪽). 그는 문화를 정의하기를 세상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모형 혹은 지도라고 말한다(26쪽). 이어 저자는 문화를 연구하는 네 가지 접근 방법, 즉 행동주의적, 기능주의적, 인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동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문화의 유형에 대해 트롬페나르스(Trompenaars)의 문화층(layers) 이론, 호프스티드(Hofstede)의 양파의 껍질 비유 이론, 빙산이론 그리고 홀(Hall)의 삼중이론(triad) 등을 소개한다.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요소(기본적인 가정들, 규범, 가치들, 전통, 의식, 사상)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3-4장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논리 차원들(logical levels)이라는 이론이다. 저자는 특히나 딜트(Dilt)의 논리 차원들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자/통역자의 문화의 관계를 설명해 가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딜트의 이

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배우거나, 변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방식에는 다차원적인 면이 있다(53쪽). 그는 이 차원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즉 정체성(who), 가치들(why), 수행능력들/전략들(how), 행동들(what) 그리고 환경(where, when)이라는 틀이 있고 이 틀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서 앞에 언급된 순서대로 그 다음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53쪽). 이 논리차원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자에 대한 전통적 견해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 해석자 혹은 문화 중개자로서의 번역자를 설명한다(90쪽). 즉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번역자는 단순히 문장을 다루는 사람으로 얼마나 본문을 충실적으로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겠지만, 만일 번역자를 단순히 문장이거나 단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해석자 혹은 중개자로 보면, 본문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충실성보다는 두 문화 사이에 서서 두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변화가 일어남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한 사람의 정체성(who)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은 다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 그리고 환경에 이르는 순서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는 이 다섯 가지의 논리 차원들로 설명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토론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사피르-호프(Sapir-Whorf)의 가설이 조명을 받는데, 이 가설에 의하면, “어떤 두 언어도 똑같은 한 실체를 대변할 만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며 “서로 다른 사회가 존재하는 여러 세상들은 단지 다른 이름을 가진 똑같은 세상들이 아니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는 주장(102쪽)이다. 이 가설은 두 가지 해석(version)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해석(the strong view)은 현재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로,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견해(102쪽)이고, 두 번째 해석(the weak version)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로,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103쪽).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언어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피르-호프 가설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이외에 다른 두 가지 견해가 더 소개되는데, 하나는 어휘적 해석(the lexical version)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법적 해석(the grammatical version)이다(103쪽). 어휘적 해석은 103쪽에서 114쪽까지에서 설명이 되는데, 이 대목에서 정치적으로 공정함(politically correct, 즉 성, 인종,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언어선택), 범주화, 그리고 어휘적, 개념적 차이에 대해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논한다. 사피르-호프 가설에 대한 문법적 해석(the grammatical version)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다루는데(115-118쪽), 문화와 언어 사이의 관계는 어휘적인 것이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는 패턴과 관련

이 있다는 호프(Whorf)의 말로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에 대한 예로 ‘광고’를 드는데, 나이키의 ‘Just do it’을 다른 문화권에서 같은 의미로 번역하기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를 지적한다. 저자는 이 장의 결론을 서두에서 시작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로 마무리하는데, 즉 사파르-호프(Sapir-Whorf)의 가설의 가치는 다름 아닌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 있음을 밝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관계에 대해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즉, 1)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2) 언어들이 다른 문화로부터 온 개념을 전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번역자, 통역자, 해석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은)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6장은 세상에 있는 실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필터들(거르개, filters)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람은 세상의 대상을 파악하는 데 단순히 있는 대상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generalization), 왜곡(distortion) 그리고 삭제(deletion)라는 단계를 거쳐 대상을 인식한다는 게 이 장의 요점이다. 저자는 이와 더불어 네 가지 거르개를 설명한다. 즉, 1) 신체적 거르개(physiological filter), 즉 인간의 오감각이라는 필터, 2) 사회적 엔지니어링/문화(social engineering/culture), 다시 말해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신념들과 가치들이라는 필터 3) 개개인적 차원의 거르개(individual filter), 이것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4) 언어라는 거르개를 소개한다. 특히 언어와 관련하여 저자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100%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한 요소이지만, 언어로 이름 붙여진 것(language label)은 우리의 반응을 결정짓는다고 피력한다(122쪽). 이 네 개의 거르개(filters)는 각각의 단계에서 앞에서 언급한 일반화, 왜곡 그리고 삭제의 과정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 세상과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사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우리의 신체적 제약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져다준다. 둘째,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인식하고 싶어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25쪽). 이어 일반화, 왜곡 그리고 삭제라는 보편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말하거나 글을 쓰는 행동에 기초한 문화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한다(129-163쪽).

제 2부 - 틀 바꾸기: 번역과 통역의 이론과 실제(Shifting Frames: Translation and Mediation in Theory and Practice)

이 책의 2부는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틀들(frames)에 근거한 번역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1부가 다소 이론적이어서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2부는 1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제 번역의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실제적 면을 다루고 있어 저자가 주장하는 번역 이론의 진수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7장은 우선 번역(혹은 중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지적함으로 시작한다. 기존의 번역 과정은 해독-암호화 과정(decoding-encoding)으로 이해되었다고 저자는 언급한다. 이 과정은 번역하려고 하는 본문(source text)을 여러 요소로 분해한 후에 다시 대상 본문(target text)으로 암호화하는 과정으로, 두 본문을 똑같이 복사하는 과정(copy model)이라고 간주한다(170쪽). 하지만 저자가 보는 번역 과정은 이런 두 본문 사이의 문자적 일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일종의 창조적 과정이다(creation model). 저자는 이 과정을 지도 혹은 가상 본문(virtual text) 이론이라고 부른다(170쪽). 다시 말해 번역자는 단순히 문자적 번역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source text)의 기저에 있는 저자의 의도와 이를 형성하고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틀(frame)을 파악하여, 대상 언어 본문(target language text)으로 번역하면서 그 해당 언어와 문화에 비교될 만한(comparable)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이 번역이라는 것이다. 번역은 단순히 두 언어 사이에 벌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를 연결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170쪽).

저자는 번역 과정에 메타모델(meta-model)을 사용하여 원본문에 있는 삭제, 왜곡 그리고 일반화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173쪽). 저자는 7장의 많은 부분에서 실제 번역에 있어서 일반화, 삭제, 왜곡(조작)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흥미로운 예들을 들어가며 해설한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원문을 번역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것을 번역하려면 대상 언어 본문(target language text)을 구성하면서 원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설명을 덧붙이거나, 혹은 아예 해당문화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174-195쪽). 저자는 본래 번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 외형상의 동등성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며, 또한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195쪽). 왜냐하면 두 언어 사이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90쪽).

8장에서 이 책의 저자는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라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과정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down),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 그리고 유사한 덩어리 만들기(lateral chunking)이다. 이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과정은 두 언어의 배후에 있는 두 문화의 틀

(frame)에 해당하는 유사한 번역과 해석을 하기 위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번역 과정을 위해 제안하는 이론들이다. 이 세 개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덩어리 만들기 과정 각 단계마다 적절한 질문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201-203쪽). 예를 들면 안락의자에 대해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를 할 경우, 의자는 무엇의 일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의자이고, 다시 의자는 가구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 안락의자를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 한 것이 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의자를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 한 것이 ‘가구’가 되는 것이다. 작은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down)는 그 반대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반면에 유사 덩어리 만들기(lateral chunking)는 “\_\_ 이라는 것의 또 다른 예는 무엇인가?” 혹은 안락의자와 같은 차원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식의 질문을 통해 유사 덩어리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언급한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있는 후, 저자는 이 덩어리 만들기가 구체적으로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단어, 2) 문화와 관련이 있는 행동, 그리고 3) 문화적 성향들을 번역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205-213쪽). 번역이나 통역 과정에서 제일 먼저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 과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 큰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up)로 인해 채택한 내용과 상응하는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유사한 언어나 개념을 담고 있는 틀(frame)을 찾는 유사한 덩어리 만들기(lateral chunking)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다시 작은 덩어리로 만들기(chunking down)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213쪽). 이에 관한 예로 미국사람들이 하는 신발이나 아파트의 가격에 관한 대화를 든다(213쪽). 신발 가격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미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런 신발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교만과 권력,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성공을 의미(chunking up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발과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거나 통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것(lateral chunking 과정에 해당)이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로 디자이너가 만든 신발, 혹은 초호화 아파트(chunking down 과정에 해당)로 번역하는 것이 본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신발이나 아파트 가격을 통해 말하려고 의도했던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제 3부 - 틀들의 배열: 의사소통 성향들(The Array of Frames: Communication Orientations)

이 책의 3부는 문화의 배후에 있는 일정한 동기들 혹은 저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성향들(orientations)을 다루고 있다. 3부의 첫 부분인 9장은 문화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의 문화가 자기 문화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화(myth)를 조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한 예로 드는 것은 영국 국민됨(Englishness)인데, 무엇이 영국적인 것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드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생선-감자튀김(fish and chips)을 시작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영국 사람들이 경험해보는 것이 아닌데도 영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상화되고 낭만적으로 내면화 되어서, 영국적인 것을 대표한다는 신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221쪽 이하).

그 다음으로 9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문화적 성향(cultural orientations)이라는 개념으로, 이 개념은 한 문화 내에서 어떤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문화적 경향(a culture's tendency towards a particular way of perceiving)이라고 저자는 정의를 내린다(230쪽). 이 문화적 성향은 여러 가지 신념들과 관련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성향과 신념들이 합쳐져서 사람이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언급한다(231쪽). 저자는 인간 본성 성향, 인간-자연 성향, 시간 성향, 활동 성향 그리고 관계 성향이라는 다섯 가지 문화적 성향을 분류한다(231-232쪽). 이런 분류를 근거로, 문화적 성향을 활동, 의사소통, 환경, 시간, 공간, 권력, 개인주의, 특수주의, 경쟁성, 구조, 사고, 연역적/귀납적, 직선적/전신적(liner/systemic)의 소재목으로 나누어 각 나라의 문화적 성향을 설명하고 있다.

10장은 맥락(contexting)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이 장을 상황(혹은 맥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맥락(상황)이라는 개념은 ‘저장된 정보’이고, 의사소통에서 이것은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정보의 양을 가리킨다(245쪽). 저자는 HCC와 LCC의 개념을 이어 소개한다. HCC는 많은 상황적 정보가 전제되고 있는 의사소통(high context communication)을 의미하고, LCC(low context communication)는 상황과 맥락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247쪽). 모든 문화적 성향(cultural orientation)은 이 두 가지 성향을 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맥락적 의사소통(HCC)에서는 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문화라고 지적한다(249쪽). 저자는 천의 비유를 들어 고맥락적 의사소통은 짝 짜인 천과 같은 것이고, 반면에 저맥락적 의사소통(LCC)은 느슨하게 짜여 있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적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 문화에 잘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48-249쪽). 이 천의 비유와 유사한 비유로 뿌리의 비유를 드는데, 얇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는 LCC로서, 본문, 사실들, 직접성, 일관성, 규칙 등을 강조하며, 이에 비해 HCC는 깊은 뿌리로 비유될 수 있는데 상황, 관계나 느낌, 간접성, 융통성, 상황 등을 강조하는 형태이다(250쪽). HCC에 해당하는 문화는 이탈리아 문화이고, 영국은 좀더 LCC쪽에 가까우며, 미국은 LCC에 영국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저자는 영어라는 언어체계를 위의 구도로 설명하면서, 영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LCC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낯선 사람들의 언어라는 말을 하는데, 상황과 맥락을 모르고도 영어라는 매개체로 누구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나,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를 대조하면서 이 두 나라의 영어는 별개의 두 언어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저자는 동의를 표한다. 더불어 영국영어는 좀더 HCC에 가깝고, 미국영어는 LCC에 가깝다고 의견을 내세운다(255-256쪽).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저자는 맥락/상황(contexting)과 두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좌뇌는 본문(text)과 관련이 깊고, 우뇌는 관계, 비언어적, 전체적 패턴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뇌는 언어생성과 관련이 있으며 해석의 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257쪽). 저자는 바츠라비크(Watzlawick)의 말을 인용해 좌뇌와 우뇌의 구별은 어린 시절에는 거의 구별이 없고, 자라면서 이 구별이 확연해 지는데, 이때 부모가 끼치는 영향(reinforcement)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번역 전략에 대해서 짚막하게 토론을 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한다. 과거의 번역 전략은 해독, 암호화의 과정으로 주로 표면구조 혹은 심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지금은 발견 과정(heuristic processes)과 틀들(frames)에 더 많은 강조를 한다고 밝힌다. 과거는 주로 분석적 사고를 요구했다면 지금은 통전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번역 전략은 LCC적 성향이 있고, 통전적 사고를 요하는 최근의 번역이론은 HCC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259쪽). 결론적으로 저자는 문화 번역자 그리고 문화 중개자는 좌뇌와 우뇌 둘 다를 사용해서 틀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동시에 틀들을 창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259쪽).

11장의 의사소통 가운데 주로 정보의 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transactional communication)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본문(문서)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써 넣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각기 다른 문화에 따라 본문에 써 넣은 정보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 문화를 크게 KISS문화와 KILC문화로 양분한다. KISS는 Keep it short and simple (간단하고 간략하게 하라)의 줄인

말이고, KILC는 Keep it long and complete (길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라)의 약자이다(261쪽). 이 문화 유형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계약(contracts), 집 구하기, 광고에서의 예를 든다. 이외에 저자/화자 중심적인 성향의 문화에서는 주로 KILC 경향이 있고, 독자/청자 중심의 성향이 있을 때는 주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KISS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끝내고 난 후 저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기 다른 장르의 본문들을 서로 다른 문화(이탈리아, 미국, 영국)에서 골라내어 이들 나라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정확히 말하면 각기 다른 성향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에서 어떻게 정보가 각기 다른 장르의 본문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279쪽 이하).

12장에서 저자는 11장과 대조가 되는 대인 관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다룬다. 11장이 정보 중심의 의사소통을 다루었는데, 12장에서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다루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표현적(expressive) 의사소통과 도구적(instrumental) 의사소통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것을 세분화하여 먼저 1) 사실과 감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일본과 같은 표현적인(expressive) 문화에서는 사실 전달보다는 감정과 인간관계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자는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을 도구적 문화로 분류하면서 이런 문화에서는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설명한다. 2) 저자는 표현적/도구적 의사소통의 세부 항목 중 두 번째로 감정의 구두표현을 다룬다. 도구적 문화와 감정적 문화 사이의 차이점은, 영국 사회 같은 도구적 문화에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감정을 표현하며 이것은 곧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색하지 않는 문화(즉, 표현적 문화)에서는 감정을 구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3) 저자는 다음으로 과장진술(overstatement)과 축소진술(understatement)을 다룬다. 저자에 의하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문화는 축소진술의 문화여서 말을 덜하면 덜할수록 좋은 문화인 반면, 미국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말해야 하는 과장진술의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통역이나 번역상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즉 과장진술 중심의 문화의 글을 축소진술 중심의 문화의 글로 번역할 경우, 번역자는 그 표현의 과장 정도를 변별하여 축소문화의 글을 과장된 문화의 글로 번역할 경우 원래 표현의 과장 정도를 더 크게 해야 하고, 그 반대로 과장문화의 글을 축소문화의 독자를 위해 번역할 경우는 표현도를 축소시켜 번역하라고 조언한다. 이외에 저자는 4) 자기 표현, 5) 관여(involve) 그리고 6)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각각의 문화에서

예를 들어가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12장 앞부분에서 표현적 의사소통과 도구적 의사소통을 다루었고, 이어 두 번째 단락에서 직설적 의사소통(*direct communication*)과 우회적 의사소통(*indirect communication*)을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회적 의사표현과 이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를 다룬다. 저자는 LCC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명하고, 애매성이 없고, 명시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LCC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그라이스(H. P. Grice)가 주장한 협력적 규칙(*cooperative maxims*)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규칙은 1) 양의 규칙: 필요한 많은 정보를 주라, 2) 질의 규칙: 진실하게 말하라, 3) 적절성의 법칙: 적절하게 말하라. 4) 방법의 규칙: 분명하고 간략하게 말하라의 네 개의 원칙을 말한다. 저자는 문화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경우를 긍정적 대답인 예(*yes*), 감사합니다, 아니오, 그리고 회의(*meeting*)의 의미를 예로 들어가며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세 번째 항에서 행동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상태(*be*) 중심의 문화는 문화적 우선성이 인간관계, 애정, 참여에 있으면서, 사생활과 공생활 간의 구별이 아주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태(*be*) 중심의 문화에서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do*)”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이며, 반면 활동 중심적(*doing orientation*) 문화에서는 행동과 자기정체성이 확연히 구분되어,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이 구별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주로 활동 중심의 문화로 ‘사실’과 ‘개인적 감정’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접근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1993년 모스크바에서 감행되었던 쿠데타를 다룬 신문기사의 예를 드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상태 중심적인 문화(이탈리아)의 기사는 주로 전체적인 상황, 배경 그리고 감정 등을 묘사하는 반면, 행동 중심의 문화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Washington Post*)는 자세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사실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고 그 문화적 차이를 흥미롭게 소개한다(318-319쪽).

#### 제 4부 - 문화 상호간 능력: 문화적 번역자와 매개자가 되는 것에 관해(*Intercultural Competence: On Becoming a Cultural Interpreter and Mediator*)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4부의 제목은 문화상호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제로 ‘문화적 번역자 그리고 매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가 암시하듯, 번역자 혹은 통역자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초보 번역자에서 전문 번역자로 발전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를 ‘문화들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키는 모형’(the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민족 중심적 단계(ethnocentric stages)로 이 단계에서는 타문화를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 타 문화를 부정함, 2) 자기 문화를 변호하거나, 혹 타 문화를 변호함 3)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상대적 단계(ethnorelative stages)로서, 이 단계에 속하는 과정에는 4) 받아들임의 과정이 있는데,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거나,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그 다음으로 5) 적응의 단계, 그리고 6) 통합의 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번역을 배우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번역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번역을 배우는 초보 번역자들은 앞에서 저자가 언급한 자민족 중심적 단계에서 번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해서 부정, 변호의 단계에 머물지만, 이들이 점점 번역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훈련받게 되면 문화상대적 단계에 이르게 되고, 또 이 문화상대적 단계에 이르러야만 전문적인 번역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13장에 걸친 이 책을 마무리한다.

### 3. 비 평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탄(Katan)의 저서를 비평적으로 살펴보겠다. 필자는 먼저 이 책의 구조와 논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점을 토론할 것이고, 이후에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논지를 성경 번역과 연관시켜 평가해 보고자 한다.

#### 3.1. 구조와 논의 전개 과정

먼저, 이 책의 구조와 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이 책의 장점을 꼽는다면, 각 장마다 저자가 그 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론서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마치 강의를 하듯이 도입 부분에 각 장에서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놓음으로써, 이 분야의 새로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나 독자들에게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각 장마다

핵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박스(box)로 처리해 주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내용을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이 개론서의 큰 장점이다. 이 책을 읽어가노라면 마치 번역 개론에 관한 강의 시간에 교수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면서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번역과 문화를 설명하면서 저자가 드는 살아 있는 신문 기사나 통계 등의 실례들은 저자의 논지를 분명하게 해주며, 동시에 설득력을 가지게 도와주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탈리아와 영국의 문화를 자주 예로 든다. 이 두 문화를 잘 아는 저자가 서로 다른 성향의 문화에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 즉 번역자는 단순히 문자나 본문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 배후에 있는 문화들을 다루고 매개하는 문화 번역자(cultural interpreter) 혹은 문화 중개자(cultural mediato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위의 장점들 중 첫 번째 내용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각 장 초두에 개략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나서 실제로 본문에 들어가서 저자가 다루는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즉 어떤 주제를 다룬다고 각 장 초두에 소개하면서 실제 본문에 들어가면 어떤 한 주제는 한 단락에서 제목까지 달아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만, 다른 주제는 소 단락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지 서너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기도 한다. 예를 들어 5장을 보면, 서두에서(99쪽)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 상황과 문화라는 맥락(contexts)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두 주제는 본문에 들어가면 상황과 문화의 맥락(contexts)이라는 하나의 소제목 안에서 다루어진다(99쪽 이하). 다시 말해, 서두의 소개와 본문의 토론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어느 대목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요약도 실기도 하지만(예 10장),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각 장마다 일관성 있게 요약을 실어 주었으면 독자들이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책의 논리 구조를 더 깔끔하게 하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 3.2. 번역 기술이 아닌 문화 이론에 집중

번역 개론서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에서 실질적인 번역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독

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경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실제적인 번역 기술을 실례로 들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나가면서 다루는 것이며 번역 초보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책의 내용은 저자가 이 책이 지향하는 바가 번역자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 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번역자는 문장이나 본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장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를 번역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그리고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 배후에 놓여 있는 문화라는 맥락과 상황에 관한 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본서는 실제적 번역 기술이 아니라, 번역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이해와 문화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 이론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번역 기술을 배우려고 이 책을 읽어간다면 그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 3.3. 저자의 이론과 성경 번역과의 관계

이 책을 성경 번역과 해석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질문을 마음에 되새기며 독서해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부분적으로는 저자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번역상의 기준의 문제가 있다. 저자는 번역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장이나 본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이 책에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번역자는 단순히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중개자 혹은 문화 매개자라고 그 역할을 못 박는다. 필자도 이런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문화이해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이다. 저자에 의하면, 번역자는 원문(source text)의 내용을 대상 언어(target language)의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원래 문장이나 본문의 본뜻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번역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번역자가 때로는 원문의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제거하거나, 확장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장). 저자의 이러한 이론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말임에 틀림없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번역자/해석자는 독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과감하게 원문을 삭제, 확장 그리고 첨가를 가하게 된다는

것은 기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물론 저자가 내세우는 기준은 문화이다. 즉, 원저자나 원문/원어(source text/language)의 문화와 이것을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독자가 속한 문화가 서로 다르므로, 원문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독자들의 문화 가운데서 충분히 살리려면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저자는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가 항상 독자들의 문화와 일대일로 대응하거나 비교될 만한 사상이나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성경 메시지의 독특성을 대상 언어의 문화에만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번역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메시지가 갖는 상징성을 상당 부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 과정에 독자들이 독자들의 문화의 틀 속에서 이해하도록 원문의 내용을 조작, 축소, 제거, 확장할 수 있다는 저자의 견해는 성경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서는 번역하려는 원문이 속한 문화와 그 원문의 번역을 받는 독자의 문화가 비교적 경험 가능한 동시대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21세기 영국에서 출판된 어떤 글을 21세기 이탈리아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일은 비교적 동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이기에 저자의 말처럼 두 문화를 배워서 충분히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도록 번역하거나 통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번역은 동시대의 두 문화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다. 고대의 문헌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예를 들면 기원전 1세기의 문화와 관련 있는 것을 현 21세기의 문화에 해당하게 번역하는 과정에 얼마나 저자의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저자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문화에서 어떤 대상이 차지하는 위치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영국 문화 속에서 선택해서 대응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약성경의 ‘십자가’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기원후 1세기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한국적인 대체어를 찾아서 십자가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에 이 대체어로 사용하라는 말이 된다. 번역 과정에서 독자를 의식하고, 또 독자의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십자가’라는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비슷한 예로, 최후 만찬도 이런 유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6:1에서 “남성이 여성을 만지는 것도 합당치 않다”(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음이 좋다)는 구절을 해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구절을 현대 감각과 문화에 맞게 번역한다면 아마도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번역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만지지 않음’이 좋다고 금욕주의적인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가? 이럴 경우는 독자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자적으로 번역해 주

는 것이 바울이 원래 의도한 바를 더 충분히 보여주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개념은 ‘문화를 중심축으로 한 해석적 번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번역하는 과정 속에 이미 번역자의 해석이 개입할 수 있다고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 본문에서 단 하나만의 올바른 번역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저자는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해석은 주관성을 요구한다. 원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제거, 축소 혹은 확대할 것인가는 결국 번역자의 주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필자가 보기에, 번역자가 원문의 문화와 독자의 문화라는 두 기준을 가지고 번역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번역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둘째, 번역자의 문화 이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매모호한 성경 본문을 번역할 경우에 과연 저자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저자는 번역자가 문화 매개자로서 언어 뒤에 있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제 뒤에는 번역자는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두 문화를 능숙하게 알아가야 하고, 또한 전문적인 번역자는 두 문화를 잘 안다는 생각이 저자의 주장 배후에 있다.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본문을 번역할 때도 번역자는 문화에 대한 일종의 전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애매모호한 구절을 번역하면서 문자적으로 그래도 번역해 놓고, 설명을 각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닐까 생각한다.

셋째로, 저자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 책 전반에 전제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상대주의이다(13장). 어느 문화가 더 훌륭하고, 어느 문화가 덜 훌륭하다고 볼 수 없고, 모든 문화가 다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상대주의를 성경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성경은 문화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초월해 있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성경 번역은 자칫 왜곡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독특한 초문화적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문화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초월해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를 위해, 저자인 카탄(Katan)이 말했던 것처럼, 원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원래 상황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성경 번역자나, 성경 해석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Katan)는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현대 한국사회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 이것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번역과 해석을 할 경우 자칫 성경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

러나 동시에 성경은 여러 문화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무시하고 본서의 번역 이론을 성경 번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 4. 나가는 말: 문화의 중요성

지금까지 필자가 지적한 비평적 내용이 카탄(D. Katan)의 번역 개론서가 가진 가치를 절하시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분명히 본서는 번역자, 통역자 그리고 해석자들에게 유의한 책임에 틀림없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번역자나 해석자가 본서를 읽지 않고 번역과 해석을 한다면 많은 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제기한 비평적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자가 본서 『문화 번역하기』(*Translating Cultures*)라는 이 번역 개론서에서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관심도 없는 분야에 필자 자신의 관심 질문을 제기하고서 저자가 대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모습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는 현대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지, 결코 고대 문헌을 어떻게 현대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필자의 비평의 한계를 드러낸다. 분명, 카탄의 『문화 번역하기』는 현대의 원문을 타문화권의 현대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번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는 공헌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고 있다. 번역하면 우리는 흔히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 자유 번역(free translation) 그리고 역동적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을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번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문화라는 요소에 다시 한 번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문화 번역하기』라는 제목이 이미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번역자는 본문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번역하는 것이다”(325쪽)라는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남는 책이다.

#### <주요어>(Keyword)

번역이론, 번역과 문화의 관계, 성경 번역, 성경 번역과 문화 이론, 문화 번역자.

Translation theory, Translation and culture, Bible translation, Bible translation and culture theory, Cultural mediator.

<Abstract>

**Book Review - *Translating Culture:*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D. Kata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4)

Dr. Kyoung-Shik Kim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nd Anyang University)

D. Katan's *Translating Culture* contains useful information and examples for the beginning translator and interpreters who need handy introduction to this area. The book helps readers to go beyond the traditional view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Katan indicates that translators/interpreters have been viewed as dealing with words, phrases and sentences and thus their roles have been understood as copier who should translate the source text with exactness. However, the author asks readers to view translators/interpreters as dealing with two cultures: the one standing behind the source text on the one hand and the other lying beyond the target language. In short, according to Katan, translators/interpreters translating culture, not simply text and thus they are cultural mediators.

Katan's book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entitled 'framing culture: the culture-bound mental map of the world.' It focuses on culture, introducing some important concepts such as frames, logical levels, and filters. Part two is entitled 'shifting frames: translation and mediation in theory and practice.' The author presents useful practical examples by concentrating on translation process including generalization, deletion, distortion and chunking. The third part (the array of frames: communication orientations) looks at contexting, transaction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al communication. The last part concludes the author's book by clarifying the six stages according to which translators decide his/her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and suggesting the translator student should understand how culture operates behind text.

Katan's book enable the translators at their beginning stage to appreciate how to approach the source text and how to mediate cultures. First, the presentation of the author's discussion is relatively easy to follow in that he mentions what he will explain briefly before he goes into detail information in each body section. He

introduces important terminology and concepts with clarity at the beginning part of each chapter. However, the presentation and organization of Katan's discussion is sometimes disproportional and thus inconsistent since he assigns more than a section and a paragraph to explain some concepts while he occupies two or three sentences to explain other terms and ideas. Secondly, the book looks at more cultures in theory than translation in practice. Although the author presents practical examples to show how to translate text in the light of cultural differences, most of his practical examples are provided briefly. Rather, he assigned too many portion of the book in dealing with culture. Thirdly,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of Katan's theory to Bible translation,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his theory of cultural mediator and Bible translation. Katan is concerned to translate two contemporary cultures. Yet, Bible translation is related to two cultures that stand in distance in terms of time: the Bible is an ancient text while the target language is modern.

In conclusion, Katan's book contains useful information and guides that help translators/interpreters to find a way to more appropriate translation and it also enable the beginning translators to understand their role as cultural mediators who do not deal with text but cultures.